

## 다목적 실용위성 2차연도 예산 233억원으로 확정될 듯

KOMPSAT사업 2차연도(95.9.1~96.6.30) 개발예산이 23,300백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 분과 심의위원회별보 2차연도 사업계획서(안)가 심의됨에 따라 윤곽이 잡힌 2차연도 예산편성총괄(주관기관집계)을 보면, 본체 설계/개발 및 5개 부분체 개발 11,344백만원(KARI 및 7개 업체), 시스템 설계/개발 6,290백만원(KARI), 과학탑재체 개발 500백만원(KAIST), 종합조립/시험시설 및 기술개발 5,050백만원(KARI) 및 사업관리비 116백만원 등이다.

등 예산(안)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차연도 사업은 오는 9월 1일(금) 정부와 KARI(총괄주관기관) 및 각 주관기관간의 총괄협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으로 착수케 된다.

## 우주정거장에 진일보 아트란티스·밀과 도킹 우주공간 왕복도 자유자재

지난 3월 카자흐스탄의 바이코 누르 우주기지에서 미국 NASA의 노번 자가드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소유즈 TM-2호가 발사되어 우주정거장인 미르에 도킹하여 자가드 비행사는 약 3개월간이나 미르에 체재한 뒤 7월에 미국에서 발사된 우주 왕복선 아트란티스가 미르에 도킹했을 때 아트란티스로 옮겨 타고 7월 7일 무사히 미국 기지로 귀환했다.

한편 NASA(미국 우주항공국)는 지난 6월 22일 미국 우주사상 100번째의 유인우주 왕복선 발사인 아트란티스를 발사하여 동 우주선이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미르에 도킹하는데 성공

하여 미르에 타고 있던 미국 우주비행사 자가드씨를 태우고 돌아왔다.

아트란티스호의 화물실에 마련된 도킹장치와 미르의 실험실에 장착한 도킹 밀이 접합되어 양쪽의 문을 열고 두나라 우주비행사들이 악수했다.

양기는 도킹한 상태에서 5일간을 비행한 뒤 공동으로 모종의



소유즈의 발사 장면

과학실험을 한뒤 분리되어 3일만에 지구로 돌아온 것이다.

돌아오는 아틀란티스호에는 5명의 미국인 우주비행사외에 2명의 러시아인·우주비행사가 교대를 위해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타고 왔다.

이로써 이제 우주 공간에 체재하는 우주정거장에 지상에서 사람과 물자를 보내는 일이 항례화하여 우주관련 기술이 한층 진보한 것을 입증했다.

### 우주의 날 행사 확정 일, 다채로운 계획 발표

일본 우주개발 사업단은 금년에도 9월 12일로 정한 「우주의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기로 확정 발표했다.

일본서 자기나라의 기념일이 되게 우주의 날을 9월 12일로 정한 것은 일본 최초의 우주비행사 모오리씨가 스페이스 셔틀을 타고 우주로 올라간 날이 92년 9월 12일이었고 또 국제 우주의 해를 기념한 해가 마침 92년이어서 그 음을 따 9월 12일로 했는데 이 안은 널리 공모한데서 골라 결정했고 92년부터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문부성 우주과학연구소와 우주개발사업단, 과학기술청,

일본우주포럼, 일본우주소녀단 등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9월 3일에 동경과 사이다마현의 오오미야(大宮)시민회관의 두곳에서 1~3부로 나누어 개최된다.

제1부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우주관련 작문에 대한 우수작품 표창이 있고 제2부는 일본의 우주비행사 모오리, 무카이, 와카다의 3인과 휴스턴, 동경, 오오미야를 위성을 연결 입체적인 좌담회를 열고 이어 제3부에서는 우주비행사와 시민간의 대화 및 우주에 관한 수업을 위성중계로 열 계획이다.

그밖에 위성 설계 경진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 해외실태조사 일본우주공업회 우주산업수요동향에

일본 항공우주공업회는 1993년부터 매년 1회 우주산업수요동향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외의 우주 산업에 대한 방향설정 등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난 5월말부터 약 2주일에 걸쳐 구미 각국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동 조사의 보고서는 추후 책으로 간행 될 예정이다.

1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들이 방문한 기관 및 기업은 다음과

같다.

- ①Orbital Science Corp.(미국)
- ②Lockheed Martin Astro Space (미국)
- ③미국방총성(미국)
- ④스페인공업기술 개발센터 (스페인)
- ⑤CASA(스페인)
- ⑥INTA(스페인)
- ⑦Aerospaiale(프랑스)
- ⑧SEP(프랑스)

### 파트너 모집중 독일, 공대공 미사일에

독일의 BGT사는 AIM 사이드 와인데에 대체할 단거리 사정 공대공 미사일로 IRIS-T를 개발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네델란드,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캐나다 등 각국에 동 미사일의 채용과 리스크 분담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IRIS-T 미사일은 180도의 시야를 가진 적외선 화상 추적장치와 액티브 레이저 신관, 기동성을 높이는 추력편향노즐 등을 장비하고 있어 96년 중반부터 시험을 시작해 2002년경에 실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인 최신예 미사일이다.